

우크라 '바그너 벨라루스행'에 북부 전선화 대비

빈 군사기지에 텐트 250개 위성 포착 젤렌스키 "용병 2만여 명 사살 전과"

벨라루스가 반란에 실패한 러시아 바그너 그룹 용병들을 받아들이기로 함에 따라 우크라이나가 벨라루스 국경 방면에서의 군사 위협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1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와 CNN 방송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날 밤 연설에서 벨라루스 접경 지역의 전력 보강 계획을 언급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모든 사실과 모든 가능성을 매우 신중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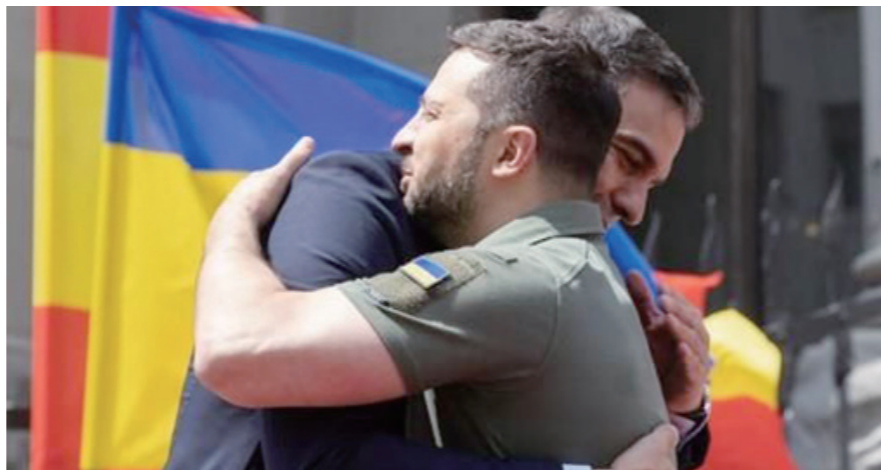
이어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벨라루스와 인접한) 북쪽을 강화하려고 지시했다"라고 덧붙였다.

세르히 나예우 우크라이나군 준장은 30일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현지전에서 벨라루스 방면으로부터 지상군 공격 작전의

위협이 감지된 것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만약 위협 수준이 높아질 경우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질적 조치 뿐만 아니라 병력 및 수단의 증강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러시아 무장반란 사태 해결을 중재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바그너 용병들이 자국 영토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했다.

상업 위성업체 '플래닛 랩스'가 지난달 29~30일 촬영한 위성사진에 따르면 벨라루스 소도시 아시포비치 인근의 한 빈 군사기지에 텐트가 250~300개 설치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 기지와 내부에 새로 설치된 텐트 등 시설물이 바그너 그룹 용병을 수용하기 위한 것인지, 바그너 용병이 실제로 벨라루스로 율지 등은 아직 불분명한 상태다.



블로디미르 젤렌스키(오른쪽)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 앞서 스페인 페드로 산체스 총리와 포옹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다만, 루카셴코 대통령은 전날 "바그너 교관들이 와서 전투 경험을 전수해준다면 이를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라며 바그너 그룹에 군사훈련을 요청했다고 공개했다.

러시아 우방인 벨라루스는 지난해 2월 러시아가 키이우를 향해 진격할 때 길을 터줬으며 이후 러시아는 벨라루스 영토를 군 훈련기지 등에 사용하고 있다. 다만 러

시아가 벨라루스에 전투부대를 주둔시키지는 않고 있으며, 벨라루스가 우크라이나에 자국군을 파병하려는 징후도 거의 없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의 반란 사태가 러시아 전력을 약화시켰다고 평가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일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정상회담 후 스페인 취재진과의 기자회견에서 바그너 그룹의 반란 사태 영향에 대해 "전쟁에서 러시아 군 전력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며 우크라이나의 반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는 전쟁에서 지고 있다. 그들은 더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책임을 물을 희생양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반격 작전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배경에 대해 "1m, 1km를 진격할 때마다 생명이 희생된다. 그들은 우리의 귀중한 보물이다. 이게 우리가 아주 소중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군은 동부전투에서 만 2만1000 명의 바그너 용병을 사살했고, 용병 8만 명이 부상했다"라며 "이는 바그너 그룹으로서는 심각한 손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CNN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 모두 사상자 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주장한 사상자 수도 검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마크 저커버그(왼쪽) 메타플랫폼 최고경영자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온라인 설전 끝에 실현 이종격투기 대결을 펼친다. AFP-연합뉴스

머스크 vs 저커버그 '격투기' 한 판 뜬다 UFC "경기 일정 조율 중"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마크 저커버그 메타플랫폼(페이스북 모기업) CEO가 이종격투기 결투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머스크와 저커버그 양측은 실제 대결 의사를 표명했으며 종합 격투기 단체인 UFC의 데이나 화이트 회장이 두 경영자의 대결 일정 조율하고 있다.

두 경영자의 대결은 온라인에서의 설전에서부터 시작됐다. 앞서 6월 저커버그의 메타플랫폼이 신규 SNS 플랫폼 '스레즈'를 출시한다는 소식에 머스크는 "무서워 죽겠네"라고 비꼬는 답글을 달았다. 이를 본 한 누리꾼이 "저커버그는 주짓수를 한다"고 경고하자 머스크는 "나도 싸움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

이에 저커버그는 자신의 SNS에 "위치 보내라"는 글을 업로드 했고, 머스크도 "진짜라면 해아지"라고 응수하며 대결 논의가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두 경영자는 글로벌 SNS 플랫폼인 트위터, 페이스북의 경쟁을 시작으로 머스크의 스페이스X 사업, 메타의 개인정보 유출 스캔들 등을 두고 서로를 비판해 왔다.

NYT는 "두 경영자가 같은 코치로부터 훈련을 받고 있다"면서 빅테크 기업을 대표하는 세기의 대결에 전세계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했다.

아이민 청소년 경찰 총격 사망에 '불타는 파리'... 佛 폭동 격화

하루 새 1300여 명 체포... 전국 2600여 건 화재 신고 경찰·군 4만5000명 배치... 주요 도시 검문 등 통제 강화



2일 폭동 사태가 격화한 프랑스 파리에서 경찰들이 시민들의 이동을 통제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프랑스에서 17세 북아프리카 이민 청소년이 교통경찰의 총에 맞아 숨지면서 이에 반발한 시위가 격화해 전국적인 폭동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1일(현지시간) 프랑스 내무부는 지난달 27일 시위 발생 이후 닷새 동안 2000여 대의 차량이 불에 탔으며 전국적으로 2600여 건의 화재 신고가 잇따르는 등 폭동 사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이밖에도 80여 곳 경찰서와 150여 곳의 공공기관이 시위대의 공격을 받았으며 민간 상업 시설을 노린 약탈 범죄도 계속되는 상황이라고 내무부는 밝혔다.

르몽드, CNN 등 주요 외신은 '불타는 파리(burning Paris)'라는 제목과 함께 거리 곳곳이 불에 타고 있는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이 같은 폭동 사태로 주말 새 1300여 명의 시위대가 경찰에 체포됐으며 진압 과정에서 100명에 육박하는 경찰이 부상을 입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수도 파리에서

는 평소 관광객이 몰리던 거리에 수천 명의 경찰 병력이 배치돼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심 검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마르세유 등지에서는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했을 정도로 시위는 격화한 상황이다.

폭력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프랑스 정부는 전국 각지에 4만5000여 명의 경찰 및 군 병력을 투입했다. 파리·리옹·마르세유 등 주요 도시에는 장갑차, 헬리콥터를 비롯한 군 장비와 특수부대가 배치된 상태다.

확산하는 폭력 사태에 알레리제 추극 선수인 킬리안 음바페(파리 생제르맹)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소년의 잔인한 죽음에 무관심할 수 없다"고 애도를 표하면서 "과교와 폭력은 어떠한 것도 해결할 수 없다"며 폭력 사태 종식을 당부했다.

폭력 사태 확산에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로이터는 "이번 사태는 2018년 '노란 조끼' 시위 이후 마크롱 대통령이 직면한 최대 위기"라면서 "폭력사태는 올림픽 개최 1년을 앞두고 글로벌 이미지에 타격을 입힐

로써 그에게 큰 정치적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마크롱 대통령은 대중적 반대를 초래한 연금 개혁 추진으로 수개월에 걸친 시위와 폭력 사태를 겪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프랑스 교외 낭테르에 거주하던 알레리제 17세 소년 나헬은 정차 중인 경찰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운행을 지속하다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다. 사고 이후 흑인에 대한 경찰의 인종차별적 조치라는 비판과 함께 프랑스 전역에서는 시위가 발생했고, 닷새간 폭동 사태로 이어진 상황이다.

한편 해당 경찰관의 변호인은 "지시에 따르지 않은 나헬의 다리를 겨냥해 발사했지만 차량이 급작스럽게 이동한 탓에 가슴 부위에 총을 맞은 것"이라면서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 측의 발언과 달리 소수 민족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에서 경찰과 주민들의 마찰은 고질적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CHEILJEDANG

리턴업 전속모델 성유리

미네랄 2종 (아연/구리)

루테인 지아잔틴 복합추출물

비타민 4종 (A/C/E/베타카로틴)

나의 건강 혁신포인트 리턴업

Returnup

중장년의 침침하고 흐린 눈엔 아이시안 멀티케어 골드

눈의 중심부인 황반의 구성 성분 '루테인'과 '지아잔틴'

수정체를 통해 들어온 빛이 상으로 맺히는 부분인 황반은 사상세포가 밀집되어 있는 우리 눈의 중심 부분입니다. 황반은 루테인과 지아잔틴색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노화로 인해 황반을 구성하는 색소밀도가 감소하면 눈이 침침해지고 흐려지게 됩니다. 중장년의 눈 건강, '루테인·지아잔틴 복합추출물'로 챙기십시오!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눈 건강기능식품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눈 건강기능식품인 아이시안 멀티케어골드는 식약처 일일 권장섭취량(20mg)을 충족하는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을 함유하고 있어 노화로 인해 감소할 수 있는 황반색소 밀도를 유지시켜 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하루 한 캡슐로 눈 건강과 기초 영양까지 케어

아이시안 멀티케어골드는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원료 뿐 아니라 기초 영양 케어를 위해 1일 권장량을 100% 충족시키는 비타민 4종(A, C, E, 베타카로틴)과 미네랄 2종(구리, 아연)이 들어있습니다.

6개월분 구매 시

정상가대비 41% 할인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80-282-9988